



광주2025현대세계양궁대회 개막 나흘째인 8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리커브 선수들이 출전을 앞두고 공식연습을 하고 있다. /뉴스

국제대회 개최역량 입증... 저변 확대 속제

광주세계양궁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민주·평화·인권 도시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큰 차질 없이 끝났다.

세계양궁연맹(WA)도 '순색 없는 국제대회'로 호평하며, 광주는 국제스포츠 개최 도시로서의 저력을 거듭 입증했다.

다만 광주가 '양궁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양궁 전지 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꾸준한 선수 자원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2025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여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전을 끝으로 8일 간의 열전을 마친다.

대회 유치 당시 용역 연구에서는 광주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만 57억원, 전국적으로는 1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거 대회 선례를 감안하면 광주 역시 이번 선수권대회로 수십억 대 경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직위는 우선 개막식·폐막식은 생략

경제효과도시 이미지 제고... 국제대회 개최 역량 증명

부대시설 확충, 국제양궁장 '전지훈련 메카' 육성 과제

'유일' 고교팀 한계... "우수선수 육성해야 경쟁력 유지"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실속형 대회로 치렀다. 대회 운영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는 웃돌 것으로 조직위는 보고 있다.

특히 결승 경기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에서의 결승 경기에 대회 운영 역량을 집중, 민주·평화·인권 도시로서의 광주를 세계에 알리 도시 브랜드 제고 역시 기대 효과로 꼽힌다.

대회 기간 중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대회 운영 면에서 '옥에 티'는 있었지만 광주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또 한 번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세계양궁연맹(WA)의 전반적인 평가 역시 만족스러웠다.

세계양궁연맹 회장은 대회 마지막날인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대회가 정말 잘 조직됐다고 느꼈다. 광주시가 스포츠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걸 대회 전반을 통해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선수들의 피드백도 상당히 좋았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 없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대회였다"고 호평했다.

'양궁의 메카'를 꿈꾸는 광주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약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러본 경험을 거름 삼아 광주에서 세계적인 양궁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회성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레거시(legacy·유산) 사업을 추진해야, 광주양궁

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세계 공사들이 모여드는 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광주 국제양궁장의 현대화·국제화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시설 여건이 세계 어느 양궁장 못지 않는 시설을 갖춘 국제 표준 시설이지만 이번 대회를 운영하면서 시설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일시적인 폭우에 선수들이 활을 쓰는 사대 내 일부 사료에 흙탕물이 고이면서 일부 선수들이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광주양궁협회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 배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만 거치면 국제 양궁대회를 치르기 손색 없는 시설이지만, 부대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세계 각국의 양궁 선수들이 전지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양궁장 인접 부지를 확보해 선수단 훈련 숙소, 실내 트레이닝센터, 경기 세미나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균형평가+신도시' 촉각... 광주·전남 마중물 전략 시급

李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화·지방신도시 강조 광주·전남 첫 신호탄 기대감... 선제적 대응, 전략적 협치, 차별성 등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화를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화와 지방신도시 카드를 제시한 이후 광주·전남에서 지역 발전의 반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발전 구상과 관련해 "모든 정책 결정에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 적용할 제도를 만들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단을 만들고 세제·규제·전기요금·배후시설·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만들까도 고민 중"이라며 "빈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꺼낸 양대 카드에 지역 사회 기대감은 적잖다.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 정책·예산이 특정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낙후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교통·성인직업 영향평가와 같이 사전평가를 통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줄곧 주장해온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논리와 취임 후 '인구소멸 정도까지 반영한 지역 가중치표를 만들라는 지시도 같은 맥락이다. 인구 유출과 소멸 속도가 임계점에 달한 광주·전남으로선 대비와도 같은 약속이다.

지방 신도시 구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재편 핵심축으로 '전남 서남권'을 꼽아 주목한 것과 오버랩되며 전남이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체계적인 마중물 전략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조항 신설, 광주·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특별법 추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범한 호남발전특위와 연말 출범을 앞둔 광주·전남광역연합을 지렛대 삼아 광주·전남이 전략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중앙 정부와 국회 방문 등 행정적 움직임도 강화하고 정보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지역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도조사 등 지역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것과 같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추후와 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전북 3중 소외론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책분야 한 전문가는 "임박하고 있어선 안 된다. 미리 준비돼 있어야 출발신호와 함께 전력 질주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부 정책의 숨은 신호를 잘 파악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전남도 "비브리오패혈증 위험 여전... 각별한 주의"를

전남도는 고온 속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여전히 지속하는 만큼 어패류 익히먹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피부에 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될 경우 감염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1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전남은 2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사망 인원은 없다.

감염 때는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발열·오한·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하지 부종·발진·수포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며, 고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간 질환·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 치사율이 50% 안팎까지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염선호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